



즉시 배포용: 5/12/2015

주지사 **ANDREW M. CUOMO**

**CUOMO 주지사, 교육에서의 학부모 선택권 법 제출**

**Timothy Dolan** 추기경, 학부모, 학생 및 지역 선출직 관리들과 함께 주지사는 의회가 교육에서의 선택권을 위해 일어설 것을 촉구

**작년에 약 44,000 명의 학생들이 Long Island의 186개 비공립 학교에 재학**

Andrew M.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학부모 및 학생들을 위해 대안 학교 옵션을 지지하고 보호할 교육에서의 학부모 선택권 법을 제출하였습니다. 이 법은 년 1억 5000만 달러의 교육세 감면을 규정함으로써 다음을 제공할 것입니다:

1. 자녀를 비공립 학교에 보내는 저소득 가정에 세액공제,
2. 비공립 학교 또는 자신의 교육구의 공립 학교에 다니도록 중간 및 저소득 학생들에게 장학금,
3. 공립 학교에 개선된 교육 프로그램(예: 방과후 프로그램)을 위한 인센티브;
4. 공립 학교 교사들에게 용품 구입을 위한 세액공제.

주지사는 오늘 Hempstead에서의 행사에서 Timothy Dolan 추기경, Dovid Kupchik 랍비, 카운티 집행관 Ed Mangano와 다수의 학부모, 학생들 및 기타 선출직 관리들과 함께 의회가 이번 회기 내에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.

“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데 – 그것은 또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개인적인 결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서의 학부모 선택권을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”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. “공립 학교를 지원하는 기부금에 보상하고, 교사가 자비로 교실 용품을 구입할 때 세액을 공제해 주며, 자녀를 독립학교, 교구학교 또는 교육구의 공립학교에 보내는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우리는 주 전역의 학생, 가족 및 교육자들의 삶에 근본적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의회는 이 법을 금년에 통과시켜야 합니다. 자녀 교육이라면 가족들에게 선택권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.”

Timothy Dolan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 “이것은 단지 카톨릭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– 그것은 학생들의 성공에 헌신하는 모든 교구학교 또는 비공립 학교들의

이슈입니다. 학생들은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인데 교육에서의 학부모 선택권 법은 그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학생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. 그것이 법이 되어 금년에 모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uomo 지사가 그런 것처럼 의회도 이 이슈에서 우리와 함께 설 필요가 있습니다.”

Five Towns and Rockaway의 Hebrew Academy의 유대학자 Dovid Kupchick 랍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 “저는 Cuomo 지사와 함께 교육에서의 학부모 선택권 법을 전폭 지지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. 이 법안은 우리 주 전역의 어린 학생들에게 독특하고 풍요롭게 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뉴욕주의 교구학교에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늘릴 것입니다. 주지사가 이 이슈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일어난 것은 정당하며 저는 주의회도 이 법을 금년에 통과시킴으로써 우리와 함께하기를 촉구합니다.”

Nassau 카운티 집행관 Edward P. Manga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 “학생마다 당연히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오늘날 Nassau 카운티 전역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문을 여는 사립, 교구, 차터 및 비공립 학교들이 있습니다. 그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 주지사의 교육에서의 학부모 선택권 법은 이러한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수 천 가정에 절실히 필요한 공정성과 구제를 제공할 것입니다. 저는 주 상하원이 이번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.”

뉴욕주의 경우, 400,000명의 학생들 즉 모든 학생들의 약 15%가 비공립 학교에 재학함으로써 뉴욕주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중요한 교육 대안을 제공하는 데 – 특히 기존 공립 학교가 실패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그러합니다. 뉴욕주에는 현재 178개의 실패 공립 학교가 있는데 – 그 중 다수가 10년 이상 실패해왔습니다.

실패 교육구의 학부모 및 학생들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뉴욕주의 많은 교구학교들이 재정적 곤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를 그러한 학교에 등록시키려면 비싼 비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 지난 5년 동안에 전주적으로 75개 이상의 교구학교들이 문을 닫았으며, 평균 수업료는 학생당 년 \$8,500에 달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므로 교육에서의 학부모 선택권 법은 주 전역의 학부모를 위해 – 특히 저소득 가정 및 과밀 또는 실패 교육구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위해 중요한 대안을 뒷받침할 것입니다.

### 가족 선택 교육 세액공제

교육에서의 학부모 선택권 법에서 이 7000만 달러 뭉은 비공립 학교 학생들의 가정에 세액공제를 제공할 것입니다. 소득이 년 \$60,000 미만인 가구는 비공립 학교 및 교육구의 공립 학교의 수업료에 대해 학생당 최대 \$5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생길 것입니다. 따라서 주 전역에서 약 140,000명의 학생과 약 82,000 가구가 혜택을 볼 것입니다.

## 교육 장학금 및 프로그램 세액공제

교육에서의 학부모 선택권 법의 이 몫은 두 요소를 포함합니다. 첫 번째는 저소득 학생 및 기타 비공립 학교에 다니는 P-12학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액공제로 50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. 두 번째는 공립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및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로 20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.

사립 학교에 다니는 P-12학년의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6700만 달러: 총 5000만 달러의 이 세액공제는 저소득 학생 및 기타 사립 또는 교육구의 공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금으로 6700만 달러를 충당함으로써 수업료를 낼 형편이 안 될 수 있는 가정의 비공립 학교 이용을 확대할 것입니다. 개인과 기업은 P-12학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비영리 단체에 내는 기부금의 최대 75%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한 단체는 학생 가정의 재정적 필요에 근거하여 사립 및 교육구의 공립 학교에 장학금을 교부할 것입니다.

공립학교 프로그램을 위한 2700만 달러: 교육 장학금 및 프로그램 세액공제의 이 몫에 의거 공립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은 교육 개선 프로그램을 위한 새 기금 2700만 달러의 혜택을 볼 것입니다. 개인과 기업은 공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유아원 및 연장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비영리 단체에 낸 기부금의 최대 75%에 대한 세액공제로 총 20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

## 교보재 및 용품 세액공제

교육에서의 학부모 선택권 법에서 이 1000만 달러 몫은 교실에서 사용할 교보재 및 용품의 구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립학교 교사당 최대 \$200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. 이 세액공제는 주 전역의 교육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기준으로 시행될 것입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: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